

적재 “2006년 재원아, 더 즐기면서 해도 괜찮아”

뮤지션들의 뮤지션... ‘러브콜’ 끊임 없어

“아이유, 성심성의껏 도움 주는 뮤지션”

“처음에는 싱어송라이터라는 수식이 버거웠어요. 잘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기분이 들었죠. 근데 이제 기타리스트, 싱어송라이터 둘 다로 불리는 것이 편안해요.”

적재(정재원·31)의 음악은 기타리스트와 싱어송라이터의 긴장 속에서 만들어졌다.

2008년 싱어송라이터 정재원 콘서트의 기타 세션으로 프로 무대에 나선 적재는 지난 2014년 11월 정규 1집 ‘한마디’를 통해 뮤지션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6년 전만 해도 “기타리스트”로 불리는 것이 편했다”고 털어놓았던 그는.

최근 신사동 안테나에서 만난 적재는 “기타리스트, 싱어송라이터 모두 같은 음악 카테고리에 있지만 많이 달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을 하게 됐죠.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잡더라”고 말했다.

적재가 12일 발매한 새 미니앨범 ‘2006’은 그의 연주 실력 이상으로 완성도를 뽐냈다.

타이틀곡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은 적재가 2006년 대학교 신입생 시절을 회상하며 작업한 곡이다. 감성의 진한 여운이 배어 있다.

그리움을 테마로 어느 날 꾀던 꿈에서 모터브를 얻은 ‘풍경’, 감성적인 피아노 연주의 나뭇가지가 참여한 ‘알아’, 먹먹한 감정의 ‘너 없어도’, 보컬 적재의 음색이 돋보이는 ‘흔적’ 등 총 5개 트랙이 실렸다.

적재는 ‘뮤지션들의 뮤지션’으로 통한다. 세션, 작곡가, 프로듀서로서 그에 대한 러브콜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김동률·김범수·윤종신·인피니트의 음반 작업에 레코딩 세션, 루시드폴·브라운 아이드 소울·박효신·신승훈·푸디토리움·윤하 등의 공연 무대에서 함께 연주하며 이름을 날렸다.

특히 한동안 아이유 밴드에 몸 담았다. 아이유가 적재의 팬을 자처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9월 아이유가 데뷔 12주년 기념으로 출연한 KBS 2TV ‘유히열의 스케치북’ 공연을 마지막으로 ‘아이유 팀’을 떠났다. “저를 아티스트로 바라봐주는 팬 분들 입장을 위해, 라이브 세션은 그만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사실 실력적으로나, 대중적 인기로나 최고를 자랑하는 아이유의 세션을 놓는다는 것은 큰 일이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제 음악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하는 사람이고, 제 음악에 더 집중해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세션으로서 모든 뮤지션과 관계가 중요했지만, 특히 아이유와는 더 특별했다. “아이유 씨는 안 알려진 아티스트의 음악을 찾아듣는 것을 좋아해요. 본인의 작사, 작곡 실력이 뛰어나니까 다른 뮤지션들의 음악을 늘 지켜봐요. 저도 힘들 때, 아이유 씨의 피드백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무엇이든지 성심성의껏 도

움 주는 뮤지션이에요.”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은 평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 적재의 마음이 바뀐, 어느 날 만들어졌다. “2006년은 대학교 1학년 신입생 때예요. 신입생만이 가질 수 있는 뿌듯함이 기억났어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눈이 반짝 빛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때죠. 돌아보니 그 때가 반짝 빛나고 있던 때였던 거죠.”

평소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은 적재는 노랫말로 그 마음을 대신 전한다. “하고 싶은 말을 가사에 녹여 내니 희열이 생기더라고요. 가사를 쓰는 재미를 느끼면서 많이 편안해졌어요. 하하.”

적재는 지난 9월 작곡가 겸 프로듀서 유히열이 이끄는 안테나와 계약 소식을 알렸다. 정승환, 권진아 등 앨범 작업에 참여하고, 샘김 정규 1집 ‘선 앤 문(SUN AND MOON)’ 앨범의 공동 프로듀서로 활약하며 안테나와 두터운 관계를 일찌감치 이어왔던 그는.

전 소속사에서 나와 스스로 운전을 하는 등 한동안 홀로 활동한 적재는 “음악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답답했다”고 전했다. “정작 앨범을 만드려고 하니까, 체력적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비축돼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희열 형님께서 작년부터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회사를 새로 찾는다고 했을 때, 무조건 안테나였죠.” 그의 스펙트럼은 음악을 기반으로 확장된 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JTBC 음악 예능 ‘비긴어게인’, ‘비긴어게인 코리아’ 출연으로 더 많은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지난 3월부터 네이버 NOW, 오디오쇼 ‘적재의 야간작업실’ 호스트로도 대중들과 만나고 있다. 다양한 음악 이야기, 합주, 곡 만들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 서울시향의 현대음악 프로그램 ‘진은숙 아르스 노바’ 시리즈에서 독일의 페터 히르시의 지휘로 협연하기도 했던 적재는 앞으로도 여러 음악 협업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라이브 세션은 그만두겠지만 싱어송 작업만 하려 하면, 다른 작업 방식에 대한 걸증이 찾아올 거 같아요. 틈틈이 다른 장르를 체험해

보고, 제게 부족한 걸 채우고 싶어요.”

적재라는 별칭에는 특별한 뜻은 없다. 학창 시절에 이름 정재원을 친구들이 장난스레 부르던 것이 굳어졌다. 그렇게 적재로 불리던 2006년 정재원에게 지금의 적재가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당시 저는 부정적이고, 찌들어 있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우울한 친구였어요. 앞날에 대한 불안을 갖고 ‘기타리스트로서 음악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만 했죠. ‘더 즐기면서 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요.”



러블리즈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룹 될게요”

그룹 ‘러블리즈(Lovelyz)’가 데뷔 6주년을 맞았다.

러블리즈는 12일 공식 SNS를 통해 데뷔 6주년 기념사진과 함께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러블리즈는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러블리즈가 벌써 6주년이나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6년 동안 보여드렸던 모습보다 훨씬 더 많은, 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다.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러블리즈는 이날 데뷔 6주년을 기념해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러블리즈는 지난 2014년 11월12일 첫 번째 정규앨범 ‘걸스 인베이션(Girls' Invasion)’의 타이틀곡 ‘캔디 젤리 러브(Candy Jelly Love)’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아츰(Ah-Choo)’, ‘지금 우리’, ‘그날의

너’,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또 그룹 활동뿐만 아니라 개별활동을 하려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케이(김지연)는 ‘아이고(I Go)’로, 류수정은 ‘타이거 아이즈(Tiger Eyes)’로 솔로 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을 팬들에게 선사했다.

이미주는 단독 웹 예능 ‘미주픽츄’와 tvN ‘식스센스’, JTBC ‘아는 형님’ 등에 출연하며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펼쳤다. 서지수는 안정적인 연기로 호평을 받은 첫 주연작 ‘7일만 로맨스’ 시즌2에 재출연을 확정하며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러블리즈는 ‘끝에서 두 번째 사랑’, ‘신비파라드 고스트볼 더블X: 6개의 예언’, ‘연애는 귀찮지만 외로운 건 싫어’, ‘거짓말의 거짓말’, ‘도도솔솔라라솔’ 등 수많은 드라마 OST에도 참여했다.

‘조제’ 한지민 “남주혁, 캐릭터와 따뜻함 닮아”

두 번째 만남으로 ‘주목’...내달 개봉

영화 ‘조제’를 통해 두 번째 호흡을 맞춘 배우 한지민이 남주혁에 대해 언급했다.

“조제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있을 수 없는 이름 조제(한지민)와 영석(남주혁)이 함께한 가장 빛나는 순간을 그린 영화다.

영석은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으로 우연히 만난 조제에게 솔직한 감정으로 다가가는 인물이다.

남주혁은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부터 사랑의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해지는 모습까지 특유의 풋풋하고 밝은 매력을 더해 자신만의 색깔로 완성했다는 후문이다.

한지민은 “영석의 따뜻함이 남주혁 배우와 닮은 것 같다. 남주혁 배우가 영석에 완벽히 이입한 덕분에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12월 개봉 예정이다.

‘前애인과 소송’ 배우 김현중, 승소 확정할까...대법 선고

前애인 폭행으로 벌금...합의 뒤 소송내

김현중 “허위 인터뷰로 내 명예훼손해”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34)씨가 폭행 논란을 빚은 전 애인과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태약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2년간 만났던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A씨와 합의했다.

당시 이들은 김씨가 언론매체를 통해 A씨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손해배상금 6억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A씨는 고소를 취하하며 약정서 체결과 관련한 내용을 누설하지 않고, 향후 어떤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A씨는 고소를 취하했으며, 검찰은 지난 2015년 1월 김씨에 대해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정식재판 청구가 없어 확정됐다.

그런데 6개월 뒤인 지난 2015년 7월 김씨가 A씨를 역고소했다.

김씨는 폭행 사실을 없었으며, 오히려 A씨가 폭행으로 유산된 사실을 알리겠다고 자신을 검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자신과 결혼 얘기를 진지하게 나누는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위 이유 등을 근거로 자신에게 1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A씨에게 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에 이른 게 맞고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으며, 오히려 김씨가 허위 인터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하거나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허혈을 했다는 날로부터 열흘 이상 지나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유산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유산에 따른 치료도 받지 않았다”라며 “절친한 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낳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다’고 말해 스스로 아이를 출산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A씨가 잡지사 인터뷰에서 ‘김씨와 함께 생활했다.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있



다’는 내용을 말한 것은 허위사실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김씨가 언론보도를 통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던 사안에 대해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1심은 “A씨는 허위 사실을 폭로해 김씨가 더 이상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면서도 “명예가 실추된 데에는 그동안 김씨의 잘못된 사생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누적돼온 것에 기인한 바도 무시할 수 없다”며 A씨가 김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유지했다.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무혐의...명예훼손, 책임 물을 것”

“스스로를 더욱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 가지게 됐다”

전 매니저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소당한 배우 신현준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현준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 매니저) 김모씨가 저를 갑질 등의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 2020년 11월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앞서 신현준 전 매니저 김씨는 지난 13년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난 7월 폭로했다.

그는 신현준에게 막말과 폭언 등을 당했고, 수익 배분도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

장했다.

김씨는 신현준이 언론 인터뷰에서 거짓을 말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준은 이날 “이미 알려진 대로 2020년 7월 27일 강남경찰서는 김모씨가 소위 프로포폴 의혹으로 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불법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고발장을 반려한 바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김씨는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도 제기하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신현준은 “김모씨가 저에게 프로포폴,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은 모두 전허 사실이 아니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저는 김씨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방송 출연 등 대의활동을 자제하면서 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제 스스로를 더욱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바르고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